

죄스러움에 슬퍼할 틈조차 없이 고통의 세월



세월호 1년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② 故 양대홍 사무장 가족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남몰래 눈물만 흘린다 1년을 보냈다. 대놓고 슬퍼할 수도, 목소리를 높여 역정을 내기도 쉽지 않았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로 동생 양대홍(사진) 사무장이 실종됐을 때 팽목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렀다. 참사 발생 한 달 뒤인 5월 16일 동생의 시신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떠올랐을 때는 죄스러움에 터져 나오는 흐느낌을 꾸욱 삼키며 참아냈다. 형 석환(49)씨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동생(양대홍 사무장)이 죽어서 나와 다행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수백명 희생됐는데...” 그리고 남몰래 인적 드문 화장실에서 통곡했다. 그렇게 1년이 갔다.

형 석환씨 “세상 피해 숨죽이고 살아...실종자 9명 빨리 돌아오길” “동생은 승객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승무원이라고 여겨달라”

가족들은 죄스러움에 줄곧 세상을 피해 숨죽이고 살아왔다. 형과 누나는 마음 넉넉한 동생을 잃었고 2명의 어린 아들과 아내는 듣지 못한 남편을 잃었지만 슬퍼할 수도 없었다. 단원고 학생들 가족들 앞에서 미안함과 죄스러움으로 드러내지 않는 1년을 보냈다.

◇미안함과 죄스러움때문에 =세월호 침몰 참사 과정에서 알려진 여수 출신 양대홍 사무장의 마지막 목소리는 국민을 울렸다. 승객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내버려둔 채 해경 고무보트에 올라탄 선장·선원 등의 무책임함과 비교되면서 ‘의인’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배가 복원력을 상실해 한 쪽으로 치우쳐 넘어가는 순간, “수협 통장에 돈이 있으니 큰 아들 학비 내. 난 아이들 구하려 가야 해”라는 말을 끝으로 침몰하는 배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양 사무장 이름을 직접 부르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복자부는 양 사무장의 경우 승객을 구한 행위가 직무를 넘어선 행동인지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미안한 생각에 드러내놓고 요구하지도 못한 채 마음만 졸인 채 1년을 보낸 셈이다.

형 석환씨는 그런 상황에도 “9명의 실종자가 가족 품으로 빨리 돌아간다면 죽은 동생이나 남은 우리 가족들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의사자 지정을 위한 활동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형은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만 있었던 건 아니다”면서 “제 몫을 다한 동생같은 승무원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적어도 동생 자식들, 내 조카들에게 ‘너희 아빠는 승객을 저버린 다른 승무원들과 달랐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승무원 가족의 몫부림으로 여겨달라”며 끝까지 다른 희생자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양 사무장 가족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걸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3 | 해질 19:04 | 달뜨기 02:44 | 달지기 14:00

제갈은도 '뚝'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7/13	보성	가공	5/12	
목포	가공	7/11	순천	가공	6/14
여수	가공	8/12	영광	가공	7/12
나주	가공	7/13	진도	가공	7/12
완도	가공	7/12	진주	가공	8/13
구례	가공	5/14	군산	가공	7/12
강진	가공	7/12	남원	가공	7/11
해남	가공	6/12	홍산도	가공	7/11
장성	가공	7/13			

◇비다 날씨

		오전		오후	
		동향	파고(m)	동향	파고(m)
서해	남해	서~북서	0.5~1.0	서~북서	0.5~1.5
남해	남해	서~북서	0.5~1.5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남서~서	1.0~2.0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남서~서	1.5~2.5	서~북서	2.0~3.0
남해	서부	남서~서	1.5~2.5	서~북서	1.5~2.5

◇생활지수

수면	100
운동	20
빨래	20

◇월별 날씨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	☁	☀	☀	☁	☀	☀
8/21	10/19	7/19	9/22	13/18	11/21	9/21

“주인 잃은 빈방을 차마 치울 수가 없구나”... 단원고 학생들의 빈방 사진전시회



2반 한세영

교북이 걸려 있고 교과서·만화 등도 고스란히 놓여 있다. 금방 청소한 듯 침대는 말끔히 정리돼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인을 잃은 '빈 방'이 사진으로 고스란히 옮겨졌다.



5반 이창현

비디오 저널리스트가 꿈이었던 2학년 2반 수정이의 영상 편집 스케줄, 아이돌그룹 '인피니트'의 포스터 7장으로 도배해 놓은 2반 세영이의 방, 16일 아침 부러부러 벗어 놓고 간 옷이 그대로 놓여 있던 5반 민성이의 침대 등 당시 아이들을 상상할 수 있는 흔적이 보여진다.



3반 김도연



6반 권순범

포스터가 늘어날수록, 영상 편집 스케줄이 더 확대될 수도 없지만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잊지 않겠다'는 노란 리본은 더 늘어갈 것 같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민주노총, 24일 전국 총파업 선언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 저지

와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등을 위해 24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 투표에는 투표자 65만8719명 중 42만8884명이 참여해 투표율 65.11%를 기록했다. 찬성은 36만1743명으로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84.35%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25일 연금개혁 저지 범국민대회, 27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투쟁, 28일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촛불집회, 29일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5월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시장 위원회를 둘러싸고 내세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더 많은 비정규직 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주홍 의원 “전남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태부족”

전남도가 지난해 응급의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불구하고, 응급의학전문

의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280개 가운데 36개(12.9%)가 전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시설 수 17.5개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전국 1위에 달한다.

중 14명(2.5%)만이 전남에 근무했다. 전국 평균 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의료기관이 절반이 넘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제10회 응급의료전진대회'에서 전용헬기를 활용한 빠른 이송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응급의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반했다.

반면, 전국 응급의학전문은 551명

/ 박지경기자 jkpark@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제주,광주,전라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4월 입회고객 (100분한정) 특별 사은권 제공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 (무기명 4인 - 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티투어리스트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